

여자축구 '광양 시대'...광양여고 우승·광영중 준우승

광양여고, 울산현대고 5-0 완파
시즌 첫 대회 춘계연맹전 정상에
MVP·득점왕 등 개인상 휩쓸어

광영중, 울산현대청운중에 0-1 패
중·고등부 꿈나무들 눈부신 성장

여자 축구계의 눈길이 전남에 쏠리고 있다. 중·고등부 꿈나무들의 눈부신 성장 때문이다. 최근 광양여고 축구팀이 춘계연맹전에서 정상에 올랐고 광영중학교도 여중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이 없었던 광양여고는 올 시즌 첫 대회부터 우승을 차지, 기대감을 높였다.

2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양여고는 최근 강원도 화천 2021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결승에서 울산현대고를 5-0으로 완파했다. 울산현대고는 여자축구의 명가로 불리는 강팀이다.



광양여고 축구팀

광양여고는 결승전에서 이진주의 멀티골과 김가연·정다빈의 득점, 상대의 자책골까지 더해 완승을 거뒀다.

광양여고는 준결승에서 포항여고를 3-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영중도 올시즌 첫 출전한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여중부 결승에서 울산현대청운중에 0-1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와 광영중 선수들은 개인상 부문에서도



광영중 축구팀

두드러졌다.

광양여고는 결승에서 2골을 넣은 김가연이 여고부 최우수선수상을, 대회에서 6골을 넣은 이진주·정다빈이 공동 득점왕, 김수린이 GK상을 수상했고 권영인 감독과 이슬기, 정봉삼 코치가 최우수지도

자상을 받았다.

광영중에서는 진혜린이 여중부 우수선수상, 이 하늘이 수비상, 박태원 감독과 조주빈, 최아영 코치가 각각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 강다슬 '금빛 질주'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

여자일반부 100m 우승

오늘 200m 출전 2관왕 도전

광주시청 강다슬(29·사진)이 시즌 첫 대회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강다슬은 20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75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여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1초87로 우승했다. 이민정(시흥시청, 11초98)과 서지현(진천군청, 12초18)을 2.3위로 밀어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다슬은 21일 여자일반부 200m에 출전해 2관왕에 도전한다.

강다슬은 부상에서 회복한 지난해 7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부터 페이스를 찾았다.

강다슬은 지난해 7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100m에서 11초87로 대회신기록을 세

우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겸 2020 예천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서 100m와 200m 2관왕에 올랐다. 당시 100m기록은 11초75. 김국영과 함께 100m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100m 한국신기록은 지난 1994년 이영숙(안산시청)이 세운 11초49이며 강다슬의 개인 최고기록은 지난 2016년 제4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11초63이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지나해 100m와 200m에서 좋은 기록을 낸 강다슬은 올해 한국신기록 수립을 목표로 동계훈련을 착실히 소화했고, 시즌 첫 대회를 금메달로 시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다슬이 훈련했을때마다 기록이 덜 나와 아쉽다. 한국신기록을 목표로 훈련해왔는데 시즌 첫 대회이다보니 준비한것만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2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합을 하면서 꾸준히 기록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우수 간판스타 서희주 태극마크 수성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위...전남, 회장배대회서 금 5·은 1 획득



제33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두각을 보인 전남 우수선수단.

전남 우수의 간판스타 서희주가 태극마크를 수성했다.

서희주는 지난 16~19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일반부 장권전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가대표 예비군인 하철환(전남도청)은 남자일반부 산타 -65kg급에서 결승에 올랐지만 이병희(대구시청)에 패해 국가대표 진입에 실패했다.

전남 우수 선수단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33회 회장배 전국 우수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자일반부 산타 -60kg급에 출전한 윤웅진(전남도청)이 정주용(경남체육회)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배찬양(순천 북성고 2년)은 남자고등부

남권과 남도에 출전,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자고등부 산타 -56kg급에 출전한 윤여중(순천 북성고 3년)도 황규민(홍주고)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대학부 남권에 출전한 강동우(순천대 1년)도 1위를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산타 -70kg급에 출전한 고은철(전남도청)은 결승에서 장경민(전주수양체육관)에게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목표로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배구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 승인

광주시 연고지 유치전 본격화 '주목'

경기 성남시와 각축

한국배구연맹(KOVO)이 20일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제7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의 광주 연고지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주는 성남시와 연고지를 놓고 각축하고 있다.

배구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광주시, 성남시를 연고지 후보로 정하고 고심 중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창단이 승인됐으니, 이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연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생구단 연고지 결정 마감 시한은 '리그 합류 3개월 전'이다. 7월 중순까지 연고지를 정하면 V리그 참여에는 문제가 없다.

광주시는 체육관 등 인프라와 동호인 규모 등을 내세워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요청했으며 지역구 의원들도 설득을 지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장대투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곧 광주를 방문해 체육관 등 시설을 둘러보고 영업 전략상 광주를 연고지로 하되 경기

가장은 광주와 경기 한 곳 등 두 군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도 조만간 장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프로배구 여자부는 10년 만에 '신인회합'을 받는다.

KOVO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제7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한국프로배구 여자부에 신생 구단이 탄생한 건 이사회 승인 기준으로는 11년, 공식 창단일 기준으로는 10년 만이다.

V리그 여자부 6번째 구단인 IBK기업은행은 2010년 10월 창단 승인을 받았고, 2011년 8월에 정식으로 창단했다.

기업은행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1-2012시즌부터 V리그에 합류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2022시즌 V리그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4강 PO 주말·공휴일 경기 시간 일부 변경

KBL은 20일 중계방송 편성 사정으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 및 챔피언결정전 주말·공휴일 경기 개시 시간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기는 오는 24-25일 월요일 4강 PO 2경기

25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개최될 인천 전자랜드-전주 KCC의 4강 PO 3차전과 5월 9일 열린 챔피언결정전 4차전은 각각 오후 1시 40분부터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외 세 경기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경기 개시 시간이 당겨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영화 '서복' 포스터 이미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복
2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단환, 최면
3관	어른들은 몰라요
4관	서복
5관	내일의 기억
6관	내일의 기억
9관	서복
7관 씨네키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노바디, 몰림, 최면
8관 씨네키움	미나리, 자산어보, 어른들은 몰라요 스프링 송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포스터 이미지

GAC 11시 음악산책1
박해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